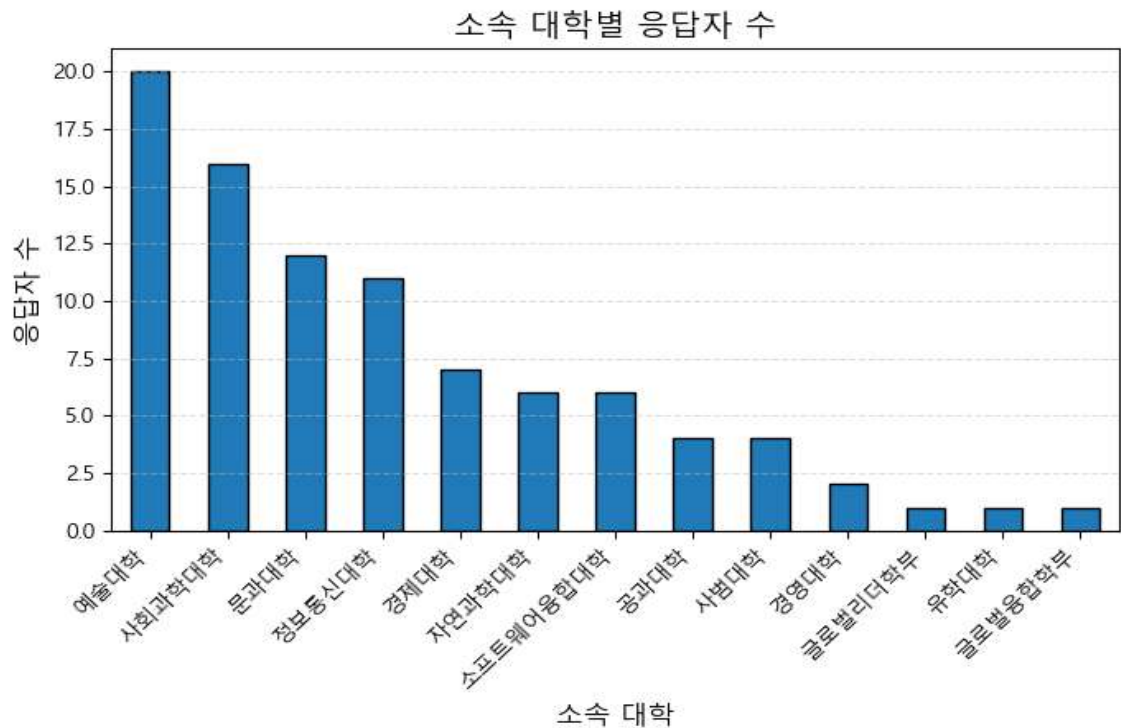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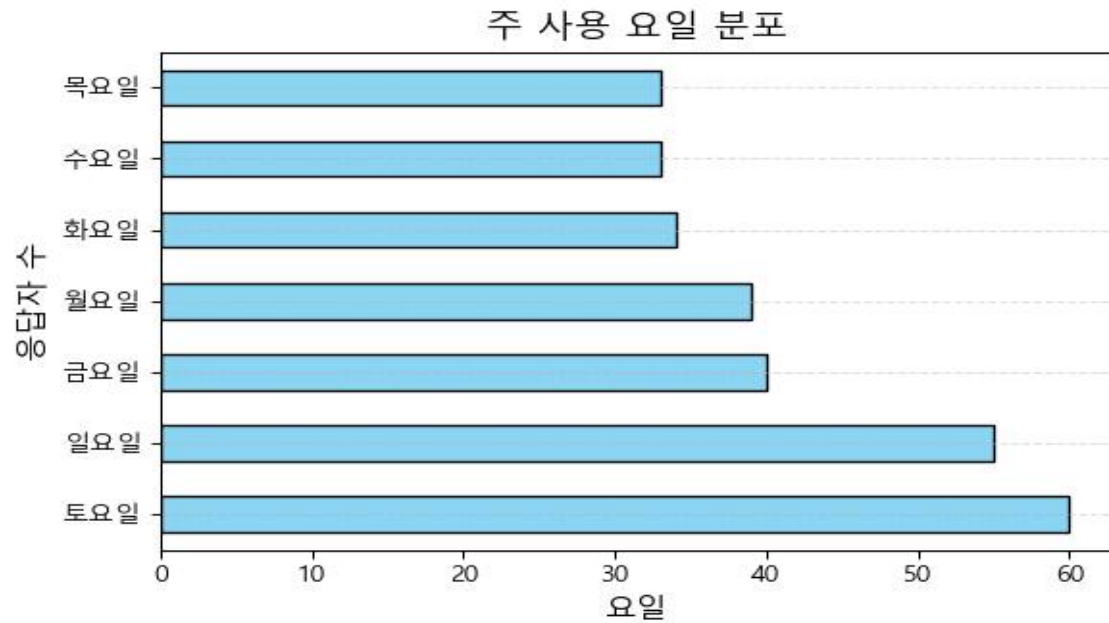
1. 응답자 연령 분포(만 나이 기준)

응답자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27세까지 다양하고, 20세에서 22세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응답자 91명 중, 만 20세와 21세가 각각 약 20명 수준으로 최다 분포를 보이며 이는 대학교 1~2학년 재학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 분포는 좌측으로 치우친 형태를 보이며 평균 연령은 만 21.8세 내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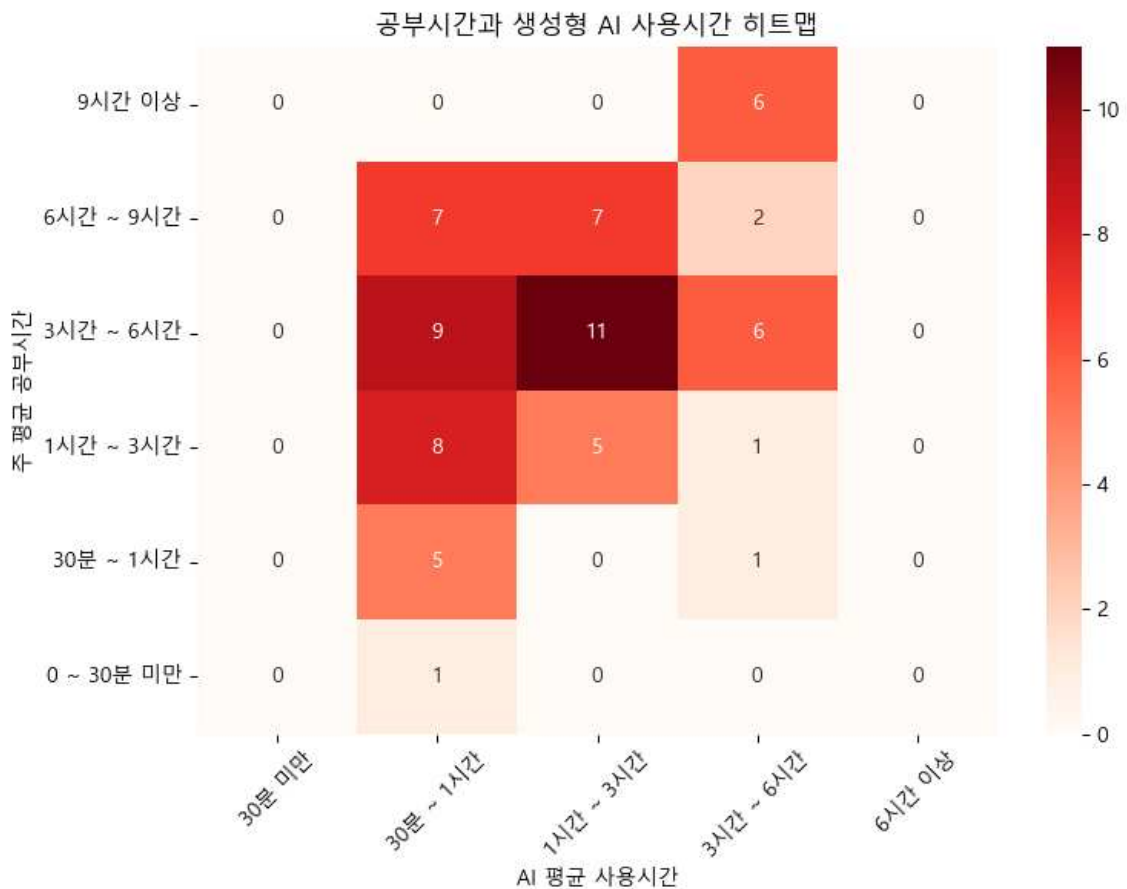
2. 소속 대학별 응답자 수

응답자들은 다양한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예수대학과 소속이 20명, 사회과학대학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문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제대학 등이 뒤를 이었고 글로벌융합학부와 유학대학 등은 1~2명 수준으로 응답자가 적었다. 이는 표본이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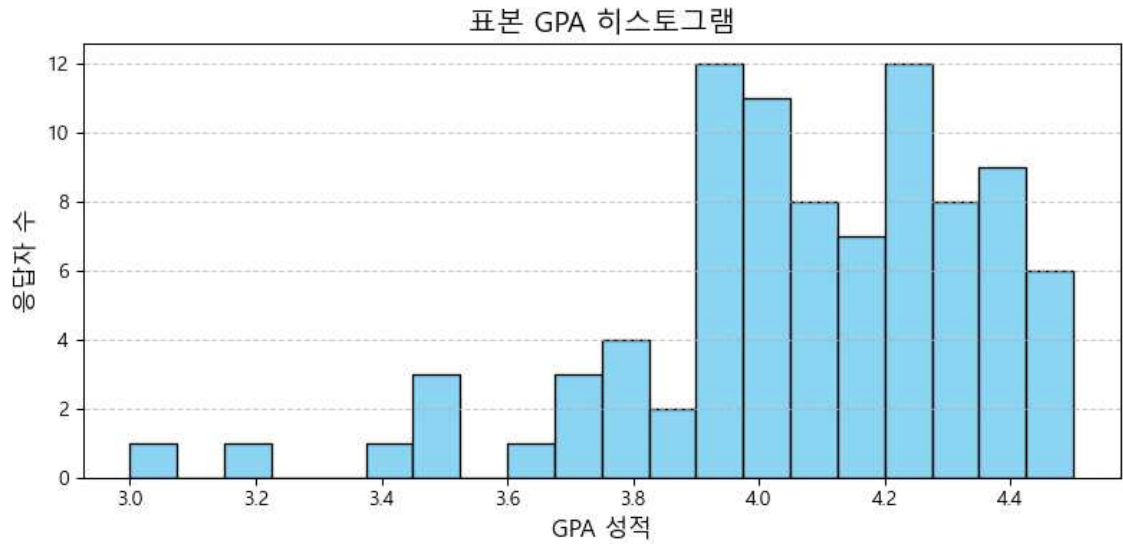
3. 주 사용 요일 분포

응답자들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각각 60명, 55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말에 AI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목요일과 수요일에는 사용률이 낮아 평일 중반부에는 AI 활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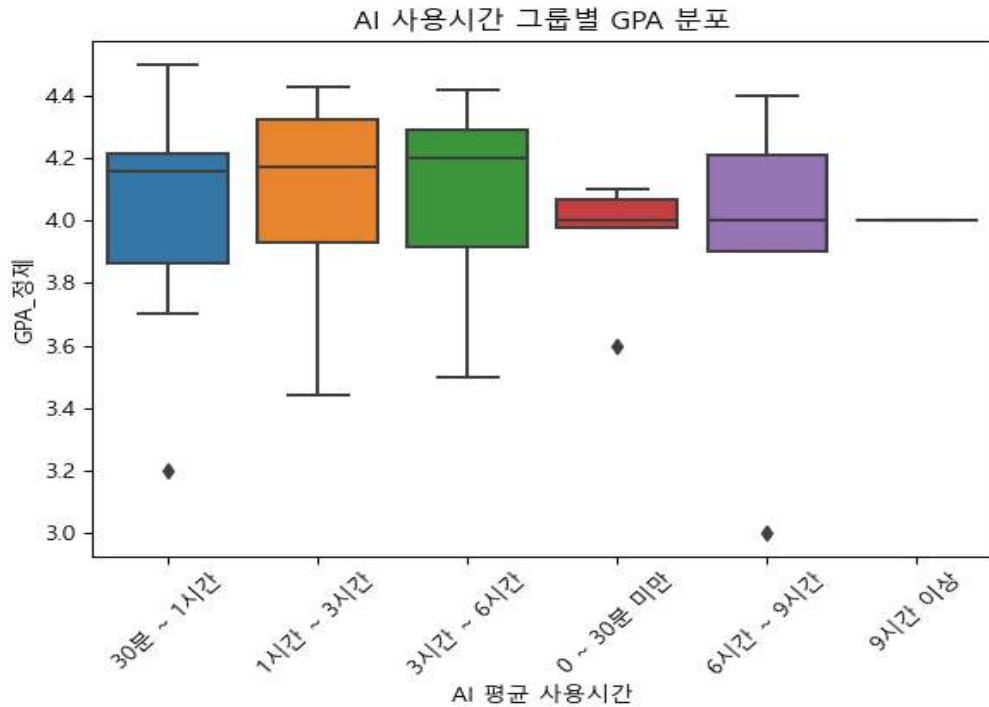
4. 공부시간과 AI 사용시간 관계 (히트맵 분석)

중간 수준의 AI 사용자들(1~3시간, 3~6시간)이 주로 3~9시간 공부하는 그룹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주 평균 6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3시간 혹은 3~6시간 AI 사용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사용은 공부시간이 많은 그룹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공부도 많이 하고, AI도 잘 활용하는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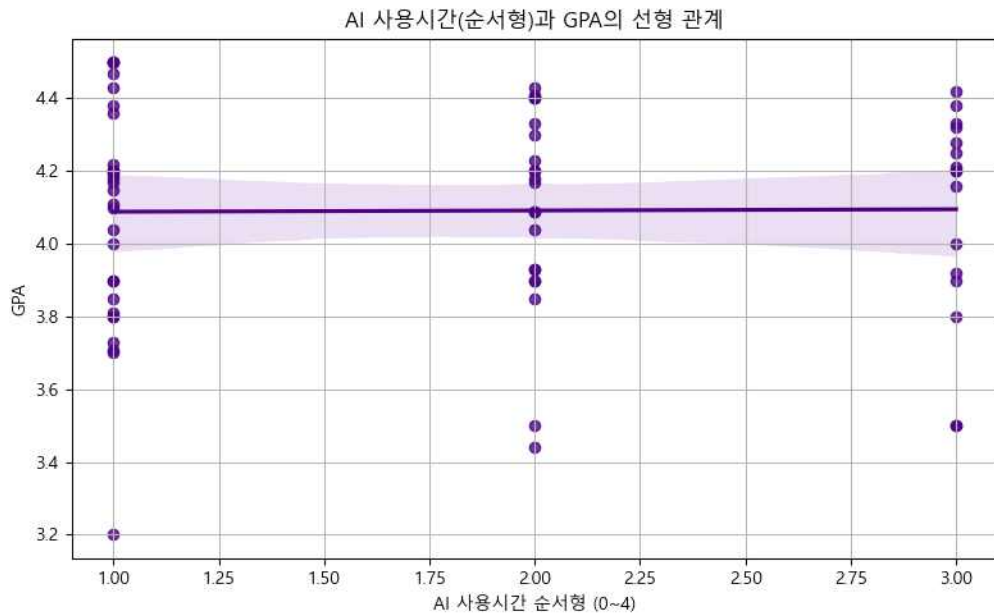
5. 표본 GPA 히스토그램

응답자들의 GPA는 주로 3.8에서 4.5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GPA 4.0 이상을 기록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포함된 표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본 서베이에 참여한 학생들이 평균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평균 이상의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경향을 말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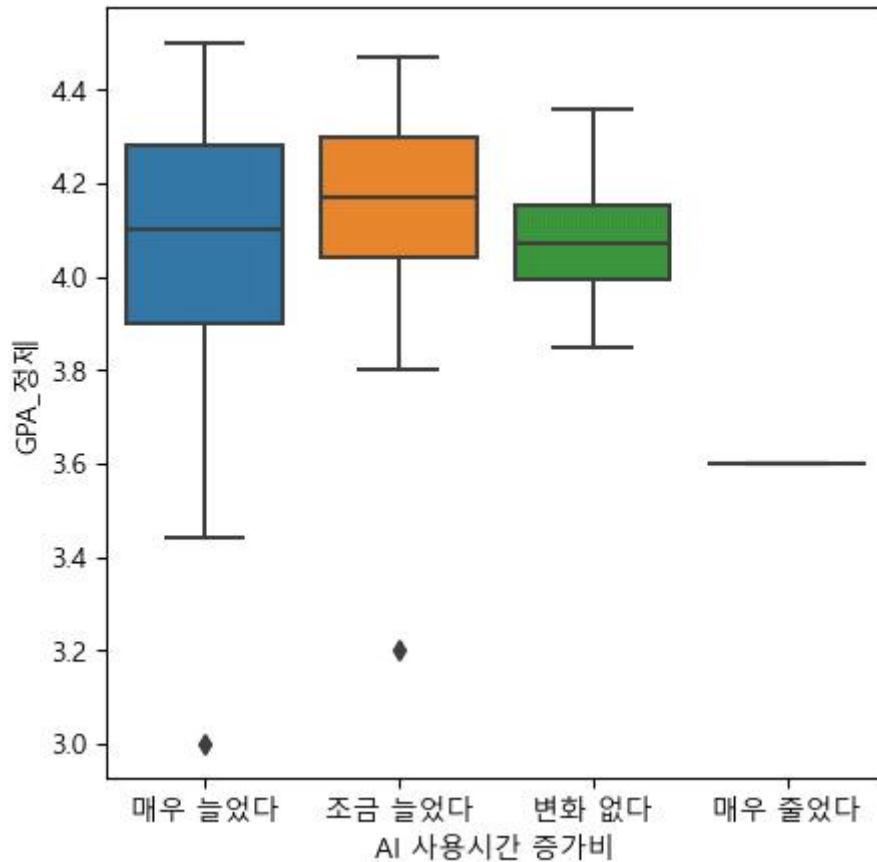
6. AI 사용시간별 GPA 분포 (박스플롯 해석)

30분~1시간, 1~3시간, 3~6시간 사용집단의 GPA 중앙값은 모두 약 4.2 수준으로 비슷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 분포를 보인다. 0~30분 미만 사용자는 GPA 분포가 낮고 편차도 작다. 9시간 이상 사용자는 응답 수는 10명으로 적지만 GPA는 4.0 부근으로 중간 수준이다. 다만, 이 집단은 표본 수가 적어 GPA 분포의 분산이나 중앙값 해석 시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간 수준의 AI 사용시간 집단(1~6시간 사이)의 GPA가 가장 높고 안정적인 분포를 보인다. 반면, AI 사용 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GPA가 비교적 낮거나 변동 폭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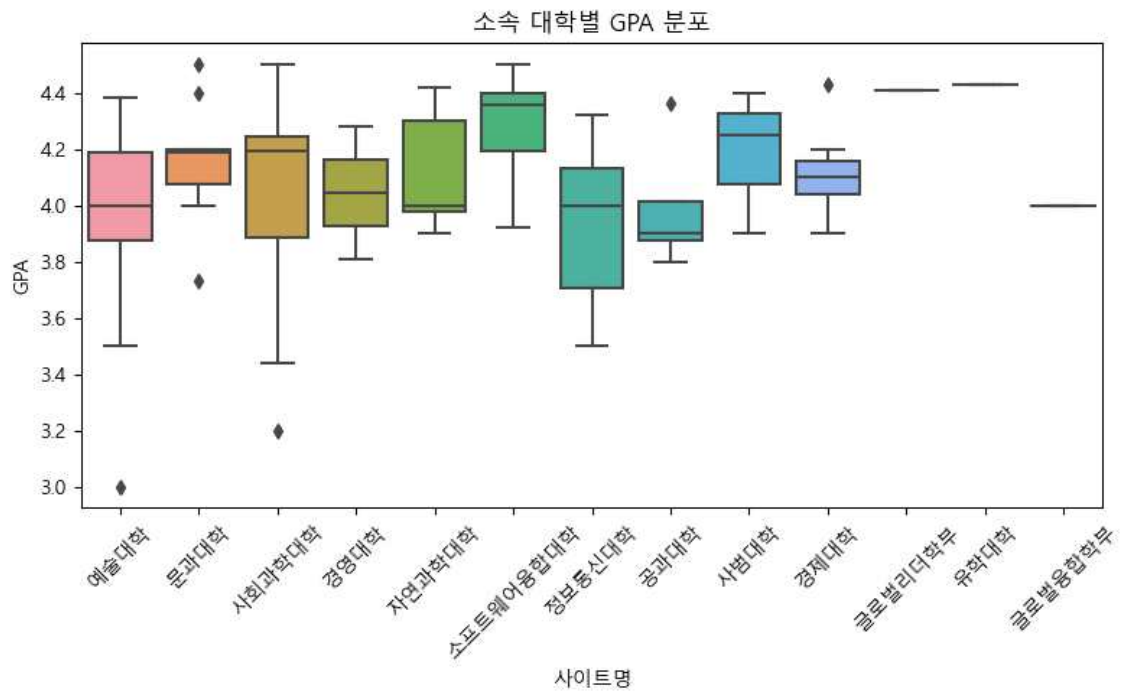
7. AI 사용시간(순서형)과 GPA의 선형 관계

AI 사용시간과 GPA의 명확한 선형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GPA는 사용시간 수준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4.0 내외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회귀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신뢰구간도 넓은 편이다. 이는 AI 사용량이 학업 성취도(GPA)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개별 사용 방식이나 맥락이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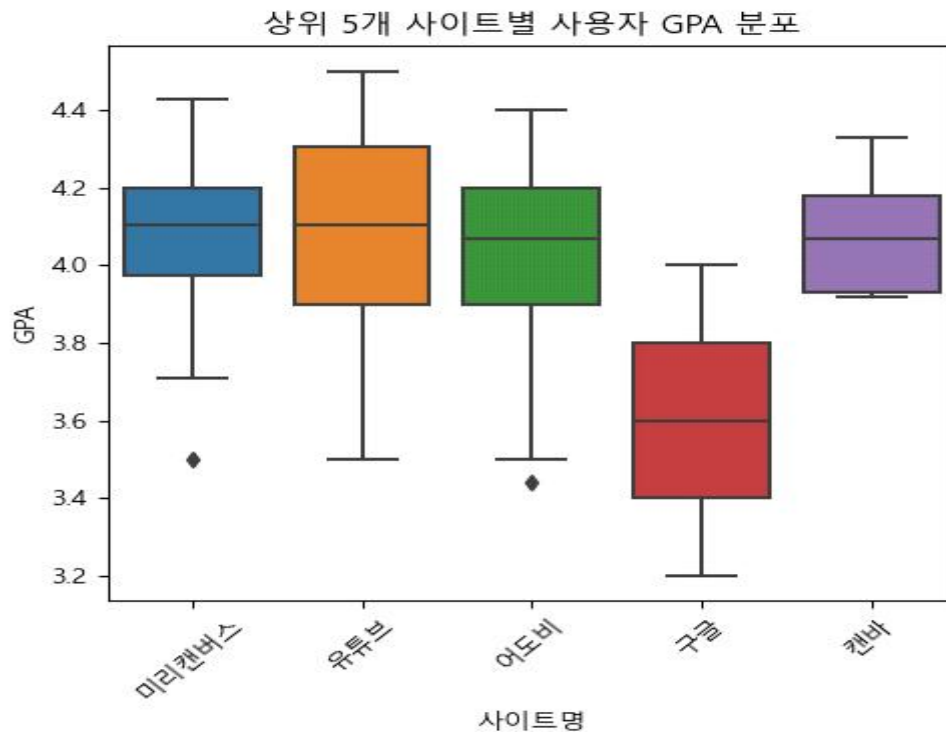
8. AI 사용시간 변화와 GPA 분포

응답자들에게 전 학기에 비해 AI 사용시간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금 늘었다”, “매우 늘었다”고 응답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GPA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조금 늘었다” 집단의 GPA 중앙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늘었다” 집단은 GPA의 전체 분포 폭이 가장 넓고 상위 값이 많이 포함된 형태를 보였다. 반면 “매우 줄었다”고 응답한 집단은 표본 수가 매우 적고 GPA 분포가 고정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AI 사용시간의 증대가 GPA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매우 늘었다” 집단의 경우 표본 수가 적고 분산이 과도하게 커져 그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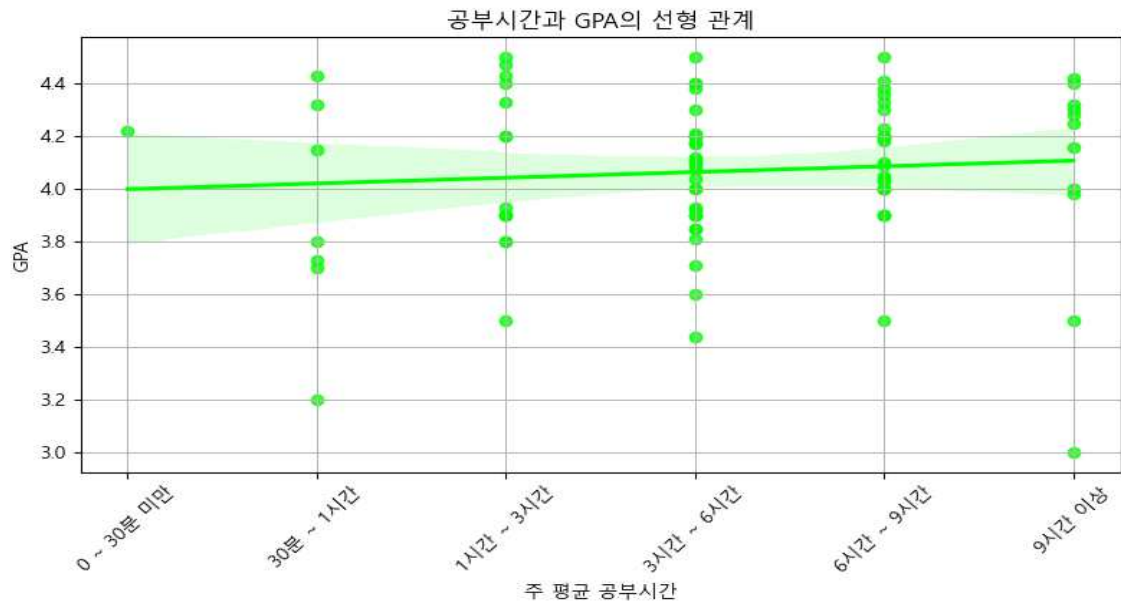
9. 소속 단과대학별 GPA 차이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GPA 분포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융합학부 등 기술 및 국제계열 단과대학의 GPA 평균 및 중앙값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은 GPA의 분산이 크고 중위값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과대학별 평가방식, 학업환경, 경쟁도 등 다양한 요인이 GPA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단과대학은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해당 집단의 분산이나 평균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 상위 5개 사이트별 사용자 GPA 분포(응답자 수 표 참고)

이 그래프는 생성형 AI 외에 함께 사용하는 주요 사이트에 따른 GPA 분포를 보여준다. 응답자 수 기준으로 유튜브(36명), 미리캔버스(25명), 어도비(13명), 캔바(5명), 구글(2명) 순이다. 이는 단순 텍스트 기반 정보 외에도 시각 자료 제작,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사용한 유튜브는 GPA 중앙값이 약 4.2로 가장 높고, 상·하위 성적대 모두 넓게 퍼져 있어 다양한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이는 학습 보조 영상 콘텐츠 활용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본 수가 가장 많아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리캔버스 사용자들은 GPA 중앙값이 약 4.1이며, 분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하위 이상치가 거의 없다. 시각적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활용한 집단이 안정적인 학업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도비 사용자들 역시 GPA가 약 4.1로 높은 편이나, 일부 하위 이상치가 존재한다. 이는 디자인, 영상 편집과 같은 전문 툴 사용이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나, 사용자 간 편차는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본 수는 13명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구글 사용자는 2명에 불과하며 GPA 중앙값이 약 3.6으로 가장 낮고 분포도 넓게 나타난다. 표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현 응답자에서는 구글 중심의 AI 도구 활용이 GPA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바 사용자는 5명으로 역시 표본 수가 적지만, GPA 중앙값은 약 4.0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분포를 보이며 성적은 무난한 편이다. 하지만 어도비(13명), 캔바(5명), 구글(2명) 사용자 집단은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GPA의 분산이나 평균 해석 시 통계적 왜곡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유튜브·미리캔버스·어도비와 같은 시청/제작 중심의 생성형 AI 도구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GPA 분포를 보이며, 특히 유튜브는 응답자 수가 많아 분석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구글 및 캔바는 응답자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구글은 낮은 GPA 경향을 보여 도구 특성과 활용 방식의 차이에 따른 GPA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11. 주 평균 공부시간과 GPA의 선형 관계

주 평균 공부시간과 GPA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공부시간이 많을수록 GPA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부시간이 많아도 GPA가 낮은 사례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공부시간 자체보다는 공부의 질이나 도구가 GPA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12. 생성형 AI 사용 이유에 따른 GPA 분포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생성형 AI 사용 목적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사용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리포트 보조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자료 정리’, ‘리포트 초안’, ‘작성 도움’, ‘글쓰기’와 같은 키워드를 주로 언급했으며, GPA는 평균적으로 4.1~4.3 사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AI를 학습 보조 도구로 적절히 활용하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도구 활용 능력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요약 및 정리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요약’, ‘핵심 정리’, ‘개념 정돈’, ‘내용 정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응답했으며, GPA는 평균적으로 4.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AI를 활용해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답 도출이나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문제 풀이’, ‘과제 정답’, ‘시험 공부’, ‘빠른 답’ 등을 주로 언급했으며, 이 그룹은 높고 낮은 GPA가 혼재되어 있어 편차가 큰 특징을 보였다. 이는 AI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성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불안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아이디어 생성이나 창작 목적으로 AI를 사용한 경우. 이들은 ‘아이디어’, ‘창의성’, ‘브레인스토밍’, ‘창작’, ‘영감’ 등의 키워드를 사용했고 주로 예술계열이나 인문계열에서 나타났다. 또한, GPA가 상중하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는 성적보다는 창의성과 표현력, 사고 확장을 중시하는 학습 방식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생성형 AI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가’보다는 ‘왜 사용하는가’가 GPA와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특히 리포트 보조나 요약·정리와 같이 학습 보조 목적의 AI 활용은 전반적으로 높은 GPA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AI가 학습의 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정답 중심의 단기 목적 사용은 오히려 성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AI를 학습의 보조도구가 아닌 대체재로 사용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 요약

본 설문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들의 생성형 AI 활용 양상과 그와 관련된 학업 성취도(GPA) 및 생활 패턴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대학교 저학년 층에 속했으며, 중간 수준 AI 사용자(1~3시간, 3~6시간 사용)는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AI 사용량 자체는 GPA와 뚜렷한 선형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용 방식과 맥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AI 사용 시간이 증가한 집단의 GP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단과대학별로도 GPA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 분석 결과

- AI 사용과 학업 성취도는 단순한 인과관계보다는 맥락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I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GPA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 중간 정도의 AI 사용량이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AI를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 AI 사용 시간이 증가한 집단의 성적 향상은 단순한 사용량 증가보다는, AI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나 AI 활용 능력의 발전 등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단과대학별 GPA 차이는 AI 사용보다 학업 환경, 평가 방식, 경쟁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 종합적으로, 생성형 AI 사용량이 학업 성취도에 있어 직접적인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학습을 보조하는 유의미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설문은 보여준다.